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비애*

정 한 기**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비애 |
| II. 접근 방법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비애의 형성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접근 방법이다. 비애는 고난에 대한 해결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생긴다. <시집살이노래>에서 고난은 시집식구에 의하여 생긴 것과 시집생활에서 생긴 것이 있다. 화자는 고난에 대하여 탄식하기도 하고 해결하려하기도 한다. 해결하려 할 때 화자는 일정한 태도를 취한다. 그 태도에는 시도와 기대가 있다.

둘째,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비애이다. <시집살이노래>에는 고난만 있는 각편과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이 있다. <시집살이노래>에서 고난만 있는 각편에서 시집식구에 의하여 고난이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주교육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생길 경우 화자는 시집식구의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할 만한 언행을 하지만 시집식구들은 정반대로 반응한다. 고난 속에 ‘기대→좌절’로의 전개가 있고, 이 ‘기대→좌절’로의 전개가 비애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고난만 있는 각편에서 시집생활에 의하여 고난이 생길 경우 화자는 시집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며 이 불안감이 비애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에서 해결의 시도는 중이 되는 것·자살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자살하는 것·중이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해결의 시도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비정상적인 해결밖에 없다는 좌절을 나타낸다. 시도와 좌절이 복합되어 있으며 이 ‘시도와 좌절의 복합’이 비애를 형성하는 요인이다.

결국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에서 비애는 시집생활에 대한 화자의 불안감, ‘기대→좌절’로의 전개, ‘시도와 좌절의 복합’ 등으로 형성된다. ‘기대→좌절’로의 전개는 화자의 언행이 시집식구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할 만함에도 시집식구들이 정반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화자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구박을 받는 것과 같다. 억울함과 관련된다.

주제어 : 민요, 시집살이노래, 비애, 화자의 태도, 영남 지역

I. 머리말

<시집살이노래>란 시집살이의 경험에서 생긴 생각·감정을 노래한 민요이다. 영남 지역에서는 동류의식(同類意識)이 강한 가창자들이 모인 곳에서 부른 노래로, 평소에 말하지 못한 한과 슬픔을 토로한 노래이다.¹⁾ 선행 연구에서 <시집살이노래>에는 여성들의 불평·원망·탄식

1) 김기현 교수는 실제 조사를 통하여 경북 지역 <시집살이노래>는 동류의식이 강한 집단에서 가창되고 가창자들의 한과 슬픔이 토로된 노래라고 하였고, 서영숙

등이 드러나 부요(婦謠)의 중심이 된다고 한 것²⁾, <시집살이노래>는 여성들이 부른 민요 중에서 가장 풍부한 감정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한 것³⁾ 등은 이러한 특징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된다. 곧 <시집살이노래>는 시집살이에서 생긴 비애가 중심이란 것이다.

<시집살이노래>에 비애가 잘 드러난다면 <시집살이노래>에 드러난 비애가 형성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의문이다. <시집살이노래>에서 비애는 유형적인 차원에서 해결의 시도가 좌절로 끝날 때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난, 해결의 시도, 좌절 등이 있는 각편에만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 완벽한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한 각편에서는 비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의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집살이노래>에서 ‘고난→해결의 시도→좌절’로 전개되는 각편뿐만 아니라 고난만 있는 각편도 살펴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를 중심으로 비애가 형성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교수는 <시집살이노래>는 개인적인 노래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공동의 노래임을 보여주고 가창의 집단은 동질적이며 폐쇄적이라고 하였으며, 이정아 선생은 <시집살이노래>는 혼자서 숨죽여 부르던 사적인 노래라고 하였다. 김기현, 「<시집살이노래>의 구연 특성과 그 의미-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어문론총』26, 한국문학언어학회, 1992, 25~36쪽 ; 서영숙, 『시집살이노래연구』, 박이정, 1996, 16~23쪽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 구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9~40쪽.

2)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294쪽.

3)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16~17쪽.

4) <시집살이노래>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민요에 나타난 시집살이를 살펴본 것, <시집살이노래>의 내용에 따른 유형을 살펴본 것, 경북지역 <시집살이노래>의 가창 환경을 살펴본 것,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의식을 살펴본 것, 서사민요의 하나로 <시집살이노래>의 의미를 살펴본 것, 서정적인 측면에서 <시집살이노래>의 의미를 살펴본 것, 시집살이 이야기와 <시집살이노래>를 비교한 것 등이 있다. <시집살이노래>의 장르·가창 환경,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내용·유형·구조·담당층의 의식, 시집살이 이야기와 <시집살이노래>와의 비교 등 <시집살이노래>에 대한 전분야가 연구되었다. 그 연구들 가운데에는 비애가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도 있지만 비애가 형성되는 방식을 본격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에는 화자의 시집살이의 경험에서 생긴 생각·감정이 드러난다. 그 생각·감정에는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것, 친정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것,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 첩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 시집에서의 과도한 노동으로 생긴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생각·감정 가운데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생각·감정을 나타낸 각편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여 <시집살이노래>의 중심이다.⁵⁾ 그

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민요에 나타난 시집살이를 살펴본 것 : 이광규, 「민요에 비친 시집살이」, 『한국문화인류학』 12, 한국문화인류학회, 1980, 1~51쪽 ; 임재해, 「여성민요에 나타난 시집살이와 여성생활의 향방」, 『한국민속학』 21집, 한국민속학회, 1988, 199~237쪽.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내용에 따른 유형을 살펴본 것 : 장성진, 「시집살이의 유형과 인물」, 『여성문제연구』 12,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377~395쪽. 경북 지역 <시집살이노래>의 가창 환경을 살펴본 것 : 김기현, 앞의 논문, 25~36쪽.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의식을 살펴본 것 : 이정아, 앞의 논문, 2006, 1~184쪽 ; 이정아,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인식」,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13~239쪽. 서사민요의 하나로 <시집살이노래>의 의미를 살펴본 것 : 서영숙, 앞의 책, 1996 ;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 서영숙, 『한국서사민요의 낱실과 씨실』, 역락, 2009 ; 서영숙, 「영남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호남지역 서사민요와의 비교를 위하여」,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학회, 2010, 207~242쪽. 서정적인 측면에서 <시집살이노래>의 의미를 살펴본 것 : 김학성, 「구비문학의 민족미학적 정체성」, 『한국 고전 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285~317쪽 ; 김학성, 「시집살이 노래의 서술구조와 장르적 본질」, 『한국시가연구』 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263~295쪽 ; 박선애, 「시집살이 노래 연구-〈가출형 며느리노래〉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178쪽. 시집살이 이야기와 <시집살이노래>를 비교한 것 : 이정아, 「시집살이 말하기에 나타난 균열된 여성의식-시집살이 체험담과 시집살이노래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6, 189~219쪽 ; 서영숙, 「시집살이 이야기와 시집살이 노래의 비교 : 경험담, 노래, 전승담의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1~31쪽.

- 5) 본고가 이용한 자료집에는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가 총 147각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생각·감정을 노래한 것이 119각편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시집살이노래>의 중심은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화자의 감정·생각으로 보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정욱 선생이 시집살이의 생활상은 시집식구와의 관계·잠 못자고

래서 본고에서는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고난이 드러난 <시집살이 노래>를 주된 자료로 한다. 자료집은 현장(現場) 민요의 채록에 가깝고 현장의 상황이 잘 기록된 『한국구비문학대계』⁶⁾·『한국민요대전』⁷⁾과 비교적 이른 시기의 민요를 채록한 『조선구전문요집』⁸⁾·『조선민요연구』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자료집에 드러난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고난에는 시집식구의 구체적인 말·행동에 의한 것도 있고, 시집식구의 구체적인 말·행동이 없이 포괄적인 시집생활에 의한 것도 있다. 전자를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이라 하고 후자를 시집생활에 의한 고난이라고 하자. 대상 자료의 각편 수와 유형별 각편 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대상 자료의 각편 수

| | 영남 지역 | | |
|------|-------|------|---------------------|
| | 경북 | 경남 | 합 |
| 『대계』 | 55각편 | 37각편 | 92각편 ¹⁰⁾ |
| 『대전』 | 8각편 | 5각편 | 13각편 ¹¹⁾ |
| 『구전』 | 3각편 | 3각편 | 6각편 ¹²⁾ |
| 『민요』 | 3각편 | 5각편 | 8각편 ¹³⁾ |
| 각편 수 | 71각편 | 52각편 | 119각편 |

못 먹고 과로의 고통 등이라고 한 것, 강진옥 교수가 기혼 여성들의 생활감정을 보여주는 것에는 시집살이노래류와 애정갈등노래류가 있고 시집살이노래류에는 <발매는소리>·<시집식구 등살에 자살하는 며느리>·<시집 물건 망가뜨린 며느리> 등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생각·감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한 것, 서영숙 교수가 <시집살이노래>에는 시집식구를 상대한 노래가 가장 많고, <시집살이노래>의 중심은 ‘시집식구-며느리관계’의 서사민요이라고 한 것 등이다. 고정옥, 앞의 책 ; 강진옥, 앞의 논문 ; 서영숙, 앞의 책, 1996 ; 서영숙, 앞의 책, 2009.

6)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1987. 이하 『대계』로 약칭한다.

7)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 1994~1999. 이하 『대전』으로 약칭한다.

8) 김소운, 『諺文 朝鮮口傳民謠集』, 제일서방, 1932. 이하 『구전』으로 약칭한다.

9)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이하 『민요』로 약칭한다.

10) 수록된 것은 총 110각편이고, 제외된 것은 18각편이다. 제외된 각편은 다음과 같다. 첩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9각편) : 7-5 성주군 벽진면24, 7-9 안동군 북후면

유형별 각편 수¹⁴⁾

| 유형 | 각편 |
|--------------------------------|--|
|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에 중이 된 며느리 (총 29각편) | 『대계』 경북 7-4 성주군 대가면19, 성주군 대가면20, 성주군 대가면82, 성주군 대가면212, 성주군 대가면222, 성주군 대가면238, 7-5 성주군 초전면30, 성주군 벽진면40, 성주군 벽진면83, 7-8 상주군 낙동면25, 상주군 사벌면21, 상주군 청리면15, 7-9 안동군 서후면18, 7-12 군위군 의흥면20, 7-15 선산군 무을면6, 7-16 선산군 고아면31, 선산군 장천면18, 7-18 예천군 풍양면34, 경남 |

- 8, 7-18 예천군 개포면9, 7-14 달성군 하빈면16, 8-5 거창군 웅양면3, 8-8 밀양군 상동면1, 밀양군 산내면13, 8-9 김해군 주촌면2, 8-11 의령군 정곡면28. 시집에서의 과도한 노동에서 생긴 것(4각편) : 7-17 예천군 용문면25, 7-18 예천군 풍양면19, 예천군 풍양면34, 7-18 예천군 풍양면38. 친정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것(3각편) : 7-7 영덕군 강구면27, 경남 8-11 의령군 지정면19, 8-12 울주군 언양면3. 사촌형님과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1각편) : 8-14 하동군 진교면3. 인생에 대한 탄식이 주이고 시집살이는 부수적인 것(1각편) : 7-8 상주군 은척면6.
- 11) 수록된 것은 총 16각편이고, 제외된 것은 3각편이다. 제외된 각편은 다음과 같다. 첩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1각편) : 경남 CD 8-11 함양. 친정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것(2각편) : 경북 CD10-5 영천, CD11-24 울진.
 - 12) 수록된 것은 총 12각편이고 제외된 것은 6각편이다. 인생에 대한 탄식이 주이고 시집살이는 부수적인 것(5각편) : 경북 #855-858 <생각나네 四篇> 봉화, 경남 #906 <방구 二篇> 제1수 동래, 경남 #914-915 <아리랑 十一謠> 제7-8수 부산, 경남 #1220 <아리랑 五十三篇> 제6수 창원, 경남 #1242-1243 <아리랑 五十三篇> 제28-29수 창원. 사촌형님과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1각편) : 경북 #702 안동. #는 책에 실린 작품번호로 이하 같다.
 - 13) 수록된 것은 총 9각편이고 제외된 것은 1각편이다. 과도한 노동에서 생긴 것(1각편) : 경북 #196 칠곡.
 - 14) 유형은 서영숙, 앞의 책, 2009, 56-58쪽을 참조하여 수정한 것이다. 수정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며느리의 고난에는 시집식구에 의한 것과 시집이란 공간만으로도 며느리에게는 고난일 수 있다고 보아 시집생활에 의한 고난을 설정하였다. 둘째, 고난만 있는 각편으로 유형을 설정하였다. 그 예가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과 시집생활에 의한 고난 등이다. 셋째,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에서 해결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에서는 해결을 시도하는 며느리의 행동을 중심으로 유형을 설정하였다. 시집식구 구박하자 자살하는 며느리와 시집식구가 모함하자 자살하는 며느리 등을 ‘자살하는 며느리’로 통합하였고, 시집식구가 깨진 그릇을 물어내라 하자 항의하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소송하자 항의하는 며느리,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등을 ‘항의하는 며느리’로 통합한 것이 예이다.

| | |
|------------------------------------|--|
| | 8-5 거창군 거창읍20, 거창군 온양면34, 거창군 가조면11, 8-6 거창군 북상면1, 거창군 마리면30, 거창군 마리면37, 8-7 밀양군 상남면12, 8-8 밀양군 삼량진읍16, 8-13 울주군 온양면2, 『대전』 경북 CD2-34 경주, 경남 CD4-8 삼천포 |
| 시집생활에 의한 고난에 중이 된 며느리 (총 3각편) | 『대계』 경북 7-2 월성군 외동면9, 월성군 외동면16, 『구전』 경남 #2323. |
|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에 자살하는 며느리 (총 3각편) | 『대계』 경북 7-5 성주군 월항면34, 경남 8-1 거제군 신현읍3, 『민요』 경남 #207 거창 |
|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에 항의하는 며느리 (총 8각편) | 『대계』 경남 8-10 의령군 부림면8, 『대전』 경북 CD3-25 구미, 경남 CD3-2 남해, CD7-7 통영, 『구전』 경북 #884 선산, 경남 #207 거창, 『민요』 경북 #209 의성, 경남 #193 통영. |
| 시집식구가 병어리라고 쫓아내자 노래 부른 며느리 (총 1각편) | 『대계』 경남 8-11 의령군 봉수면23. |
| 시누가 죽자 기뻐하는 며느리 (총 1각편) | 『민요』 경북 #197 군위. |
|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 (총 21각편) | 『대계』 경북 7-4 성주군 대가면11, 7-5 성주군 벽진면72, 7-9 안동군 입동면12, 안동군 서후면28, 안동군 서후면29, 안동군 북후면1, 안동군 북후면2, 7-11 군위군 산성면13, 7-15 선산군 무을면7, 7-17 예천군 용문면6, 7-18 예천군 풍양면33, 경남 8-1 거제군 장승포읍14, 8-4 진양군 명석면4, 8-5 거창군 가조면17, 『대전』 경북 CD7-37 성주, CD13-10 청도, 경남 CD5-5 산청, 『구전』 경북 #620 의성, 『민요』 경남 #195 창녕, #200 거창, #216 통영. |
| 시집생활에 의한 고난 (총 53각편) | 『대계』 경북 7-1 월성군 현곡면28, 7-4 성주군 대가면6, 성주군 대가면53, 성주군 대가면84, 성주군 대가면171, 성주군 대가면183, 7-5 성주군 월항면52, 성주군 벽진면85, 7-6 영덕군 달산면9, 7-7 영덕군 강구면23, 7-8 상주군 청리면13, 상주군 공검면25, 7-9 안동군 북후면14, 7-10 봉화군 봉화읍5, 7-11 군위군 의흥면2, 7-13 대구시37, 대구시49, 7-14 달성군 하빈면14, 7-18 예천군 풍양면5, 예천군 풍양면10, 예천군 호명면19, 예천군 호명면40, 예천군 개포면5. 경남 8-1 거제군 하청면14, 거제군 장목면4, 거제군 연초면9, 8-2 거제군 일운면9, 8-3 진양군 사봉면4, 8-4 진양군 대곡면5, 진양군 명석면15, 8-5 거창군 가조면19, 8-6 거창군 북상면45, 8-7 밀양군 무안면11, 8-8 밀양군 산내면26, 밀양군 삼량진읍17, 8-10 의령군 부림면6, 의령군 의령읍35, 8-11 의령군 정곡면11, 의령군 정곡면29, 의령군 봉수면36, 8-12 울주 |

| | |
|--|--|
| | 군 강동면11, 울주군 언양면21, 8-14 하동군 진교면4, 하동군 약양면2, 하동군 하동읍15, 『대전』 경북 CD7-7 상주, CD7-34 상주, CD9-13 영주, CD12-11 의성, 경남 CD8-20 합천, 『구전』 경북 #673 영일, 경남 #1245 <아리랑 五十三篇> 제31수 창원, 『민요』 경북 #206 의성. |
|--|--|

각편 가운데에는 고난에서 해결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것도 있고, 고난만 있는 것도 있다. 앞의 표에서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에서 고난만 있는 각편이 74개이고,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이 45개이다. 고난만 있는 각편이 전체의 60%이다. 또한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과 고난만 있는 각편에서 화제가 같은 경우가 많다.¹⁵⁾ 같은 화제로 고난만 있는 각편으로 창작되기도 하고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으로 창작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고난만 있는 각편이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에서 하나의 창작 틀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난만 있는 각편에서 비애가 형성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난에서 해결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은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에 중이 되는 며느리, 시집생활에 의한 고난에 중이 되는 며느리,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에 자살하는 며느리,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에 항의하는 며느리, 시집식구가 병어리라고 쫓아내자 노래 부른 며느리, 시누가 죽자 기뻐하는 며느리 등이다. 중이 되는 것·자살하는 것 등이 35각편이고, 항의하는 것·노래하는 것·기뻐하는 것 등이 10각편이다. 항의하는 것·노래하는 것·기뻐하는 것 등은 화자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서 시도 자체가 고난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이에 비하여 중이 되는 것·자살하는 것 등은 시도 자체가 극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이 되

15) 고난만 있는 것과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것 등에서 화제가 같은 경우는 ① 발매기를 하고 왔는데 시집식구들이 구박함, ② 음식을 장만하였는데 시집식구들이 구박함, ③ 식기를 손상시키자 시집식구들이 구박함, ④ 음식을 몰래 먹자 시집식구들이 구박함, ⑤ 시집식구들이 무고함 등이다.

는 것·자살하는 것 등이 해결의 시도가 있는 각편 전체 가운데 78%를 차지한다. 자살하는 것·중이 되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II. 접근 방법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비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조동일 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조동일 교수는 <시집살이노래>를 포함한 영남 지역 서사민요를 다루면서 서사민요에서 비애는 “고난→해결의 시도→좌절→(해결)”이란 유형 구조에서 생긴다고 하였다.¹⁶⁾ 고난에서 해결을 시도하고 그 시도가 좌절됨으로써 비애가 생긴다는 뜻이다. 해결이 있더라도 죽은 남편과 만나서 살거나, 죽고 나니 남편이 후회한다거나, 죽은 후에 부부가 되는 것 등은 실현이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하였다. 본고는 조동일 교수의 견해를 모두 수용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첫째,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 전개된 각편이 아닌 경우 비애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둘째, 화자가 해결을 바랄 경우 ‘해결의 시도’만 있는가?

고난만 있는 각편들에서 비애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점이 의문이다. 이 의문과 관련하여 서영숙 교수는 작품의 주제를 유형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편 차원까지 고려하여야 된다고 하며 며느리와 시집식구가 등장하는 각편(<시집살이노래>)에는 사건 전개 양상에 따라 기대우위형, 좌절우위형, 양면복합형 등이 있고 기대우위형은 주인공의 요구가

16) 조동일, 앞의 책, 118쪽.

해결되는 것이고, 좌절우위형은 주인공의 요구가 좌절되는 것이고, 양면 복합형은 주인공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성취되지는 못하나 간접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좌절과 성취가 복합된 것이라고 하였다.¹⁷⁾ 본고는 서영숙 교수의 견해를 수용한다. 그런데 수용에서 보더라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각편에 따라 다양한 결말이 있음은 인정되나 결말이 없이 고난만 있는 각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다른 의문은 화자가 해결을 지향할 때 그 태도가 해결의 시도만 있는가하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 화자가 해결을 지향하는 것을 해결의 시도라고 하였다. 해결의 시도는 화자가 직접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언행(言行)¹⁸⁾한 것이다. 이것과 다른 것은 없는가? 이 의문과 관련하여 서영숙 교수는 ‘기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기 요구를 드러내는 상황”이 기대이고 자기 요구가 어긋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좌절이라 하였고, <중노래>에서는 “해소의 시도와 좌절 단락을 다 갖추고 있어 기대와 좌절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였다.¹⁹⁾ 기대란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기대란 용어가 사용된 예로 보아 해결의 시도와 그 뜻이 유사하다. 해결을 바라는 화자의 태도가 해결의 시도만 있는가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비에(悲哀)란 고난에 대한 해결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생긴 정서이다.²⁰⁾ <시집살이노래>에서 고난은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생

17) 서영숙, 앞의 책, 2009, 77~108쪽.

18) 언행이란 말과 행동이다. 화자는 시집식구에 항의하는 것과 같이 말 중심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고, 중이 되는 것과 같이 행동 중심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또한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에서도 시집식구가 말로써 화자를 구박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써 화자를 구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은 공통되므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언행이라 한다.

19) 서영숙, 앞의 책, 1996, 49~51쪽.

20) 김대행 교수는 “모순되는 충동의 갈등을 조화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정적 정서”에는 증(憎)·분노(憤怒)·공포(恐怖)·비에(悲哀)·우수(憂愁)·낙백(落魄)·절망(絶望) 등이 있다고 하였다. ‘모순되는 충

긴 것이다.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고난에는 시집식구의 구체적인 언행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시집식구의 구체적인 언행이 없어도 화자가 시집식구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시집살이노래>에서는 시집이란 공간 자체가 며느리에게 고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집생활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에 의하여 비애가 형성될 가능성도 크다. 고난이 생겼을 때 화자는 고난을 해결하려고 일정한 태도²¹⁾를 취한다. 화자의 태도에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거나 남에 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전자가 주체적으로 모순을 해결하려는 태도라면 후자는 의존적으로 모순을 해결하려는 태도이다. 본고는 전자를 시도(試圖)라 하고 후자를 기대(期待)라 한다.²²⁾ 결국 비애는 고난을 해결하려는 화자의 태도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고, 화자의 심리로 형성될 수도 있다. 고난만 있는 각편과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 전개가 있는 각편에서 비애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

등의 갈등'을 본고에서는 고난이라고 보았고 '조화하는 과정'을 본고에서는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김대행,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90, 285~296쪽.

- 21) 태도란 사람·대상·범주 등에 대한 신념·감정·행동 등의 조합을 말한다. James W. Kalat, Michelle N. Shiota, 민경환·이옥경·김지현·김민희·김수안 옮김, 『정서심리학』, 시스마프레스, 2007, 244쪽.
- 22) 기대란 용어의 개념은 박혜숙 교수와 최미정 교수의 논의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박혜숙 교수는 고려속요에 나타난 여성화자는 고독한 상태·버려진 상태에 골몰하며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며 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의존적 존재라고 하였고, 최미정 교수는 고려속요 <가시리>에 나타난 여성화자는 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님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박혜숙 교수·최미정 교수 등의 논의는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취한 태도를 다룬 것이기는 하지만 여타의 문제 상황에서도 화자가 취할 수 태도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행동에 몰두하여 상대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을 기대(期待)라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도(試圖)라고 한다.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고전문학연구』 14, 한국고전문학회, 1998, 6~27쪽 ;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67~90쪽.

펴보자.

Ⅲ.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비애

1. 고난만 있는 각편에서의 비애

고난만 있는 각편에서 고난은 시집식구에 의하여 생기거나 시집생활에 의하여 생긴다.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은 시집식구의 구체적인 언행(言行)이 있는 것이고, 시집생활에 의한 고난은 시집식구와 관련은 있으나 시집식구의 구체적인 언행은 없는 것이다. 각각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① 시집간 삼일만에 밭을매로 가라하니 / 하늘같이 너븐밭을 한 길같이 긴밭을 / 시골반을 매고나니 ② 그길사 일이라고 / 정심나절 찾아왔나 종년이 하는말이 / 그길사 일이라고 정심나절 찾아왔나 / 밥이랴 꼬 주는것은 삼년묵은 콩버리밥 / 삼년묵은 되장에다 한술가라 떨어져주고 / 이리못한다 가라하니 종년이 하는말이 / 자팽이나 헤어주지 쫓모래 끼 끊어줘서 / 쫓고돌아서니 부러지네²³⁾

(나) 형님 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던고 / 시집살이 말도 마라 꼬치 당초 맵다 해도 / 시집살이 비할손나 시집가든 사흘만에 / 삼일사관 디린 후에 정지라꼬 나가 보니 / 도리도리 도리판에 수절농기 어렵더라 / 콩꼬다리 시누부야 팔꼬다리 시동상에 / 중우 벗인 시동상에 말하기도 어렵더라 / 버버리 삼년 봉사 삼년 귀머거리 삼년 / 석삼년을 살고나니 배웃같은 내 얼굴이 / 이리리꽃이 다 피었네²⁴⁾

23) 『대계』 경북 7-18 예천군 풍양면33. 원으로 된 숫자와 빗금(/)은 필자가 한 것으로 이하 같다.

24) 『대전』 경북 CD 12-11 의성.

(가)는 시집식구에 의하여 고난이 생긴 것이고, (나)는 시집생활에 의하여 고난이 생긴 것이다.

(가)에서 ①은 화자의 언행이고, ②는 시집식구들의 언행이다. 화자는 시집온 지 삼일 만에 하늘 같이 넓은 밭을 맨다. 다른 각편에서는 친정에서 곱게 자란 화자는 시집온 지 삼일 만에 시어머니의 말씀을 좇아 불같이 더운 날에 잡초가 무성한 밭을 쉬지 않고 거둬 맨다고 하였다.²⁵⁾ 시어머니의 말씀을 좇아 고생을 감내하며, 시집온 지 삼일 만에 밭매기를 하고, 불같이 더운 날에 잡초가 무성한 밭을 매고, 귀하게 자랐던 사람임에도 밭매기를 한다. 화자가 시집식구에게 순종하고 시집식구들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면이 강조된다. 이러한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언행은 화자가 시집식구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期待)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시집식구는 화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반응한다. 점심밥을 달라고 한 다며 편잔하다가 삼년 묵은 콩보리밥과 된장을 준다.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므로 화자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시집식구들이 화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반응하는 것에는 화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시집식구들이 화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탓하는 것도 해당된다. 시집식구들은 화자가 꺾지 않은 석류를 화자가 꺾었다고 탓을 하고, 화자가 건드리지 않은 제비 새끼를 건드렸다고 탓을 하고, 화자가 먹지 않은 찰부꾸미를 먹었다고 탓을 한다.²⁶⁾ 화자는 잘못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한다. 그런데 시집식구는 화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반응

25) “아가아가 서울아가 뒷동산에 밭가매라 / 뒷동산에 밭을매로 가인계로 시대삿
갓 식이찌고 / 은가락지 꺾던손에 호맹이푹치 웬일인고 / 가족신신은 진배긴 가
죽신을 벗어놓고 / 뒷축없는 헌신찌기신고 뒷동산에 밭을매로가이 / 불겔이라
더운날에 미겔이라 지슨밭을 /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시골을 거둬매니 / 다른점
습 다나와도 이내점습 안나오네” 『대계』 경북 7-5 성주군 벽진면40.

26) “열다섯에 시집을오니 시집살이 살라하니 / 나안꺾은 석류야꽃도 날꺾었다꼬
탓이로세 / 나안건디린 제비새끼 날건디렀다 탓이로세 / 나안묵은 찰부꾸미도
날묵었다고 탓이로세 / 무섭더라 무섭더라 시집아살이가 무섭더라” 『대계』 경
남 8-5 거창군 가조면17.

한다. 기대에서 좌절로의 전개이다. 이러한 양상은 고난만 있는 각편의 다양한 화제에서 공통된다.

음식을 장만할 때 화자는 새벽에 일어나 은대야에 머리를 감고, 고사리와 채소를 캐어 맑은 물에 씻어, 셋별 같은 솥에 삶고, 은 동이에 음식을 담아 시집식구에게 내어 놓는다.²⁷⁾ 화자가 시집식구를 위하여 고생을 감내하고 시집식구를 위하여 정성을 들인다. 시집식구들의 호의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하지만 시집식구들은 음식이 맛이 없어 너나 먹고 깨나 주라며 정반대로 반응한다. 기대에 대한 급격한 좌절이다. 식기(食器)를 손상(損傷)시키자 시집식구들이 구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화자는 열여섯에 시집을 왔고 시집은 지 나흘 만에 시어머니의 말씀을 좇아 많은 양의 깨를 볶다가 양동 가마를 켜다.²⁸⁾ 어린 나이이고 시집은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아 살림살이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다가 실수한 것이고, 많은 양의 깨를 볶다가 깨진 것이다. 시집식구가 용서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다. 하지만 실제 시집식구들은 정반대로 반응한다.²⁹⁾

27) “찌금찌금 써어마니 앞집가서 내말하네 / 도로 동씨님은 뒷집가서 내말하네 / 첫새벽에 일어나서 은대야라 머리감고 / 늦대야라 세수하고 올라갈때 울고사리 / 내리올때 늦고사리 양아밭에 양아닷단 / 솥풀밭에 솥풀닷단 셋별같은 네밭솔에 / 어리썰썰 삶아내어 은동에라 담아이고 / 시천같은 물에다가 어리설설 써치 내어 / 시아바님 상에는 남자독자 끼미놓고 / 시어마님 상에는 여자독자 끼미놓고 / 우리라 내상에는 이리저리 체리놓고 / 아래웃방 권식들아 님의집의 일어서 / 뭇기갱이 손에들고 두름마당 다니는데 / 우리집의 권식들은 해돋뿌룩 잠을 자네 / 아랫방의 시누님아 일어나서 세수해라” 『민요』 경남 #216 통영.

28) “열다섯에 머리었어 열여섯에 시집가니 / 시집간후 사흘만에 일거리를 준다하니 / 들깨닷말 참깨닷말 볶아라고 내어주네 / 양가매다 볶고나니 양가매가 벌어졌네 / 양가매벌어진 사흘만에 은동우벌어진 사흘만에 / 은동우를 깨었구나 시아바씨 하는말이 / 아가아가 며늘아가 너거친정 찾아가서 / 논밭전답을 다팔아도 양가매를 물어오이라 / 시어마씨 하는말이 아가아가 며늘아가 / 너거친정 찾아가서 살림살이 다팔아도 / 은동우를 물어오이라 시누이가 하는말이 / 형아형아 울키형아 너거친정 찾아가서 / 주계조리를 다팔아도 은파뱅이 물어오이라” 『대계』 경남 8-11 의령군 정곡면²⁹⁾.

(나)에서 화자는 시집에서 작고 둥근 두리반에 수저 놓기도 어렵고, 작고 둥근 밥그릇에 밥 담기도 어렵고, 중의를 벗고 다니는 어린 시동생에게 말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난으로 배꽃 같이 곱던 얼굴이 할미꽃이 되었다고 탄식한다. 시집식구들의 구체적인 언행은 없다. 화자가 수저 놓는 것·밥 담는 것·시동생에게 말하는 것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어려움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며 비애를 토로한다. 그 비애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로 강화된다. 이러한 비애는 어떻게 형

29) 화자가 시집식구들 몰래 음식을 먹는다가 시집식구들이 구박하는 화제도 마찬가지로 있다. “시집가는 사흘만에 목고지라 목고지라 / 모래다래 목고지라 뒤안으로 돌아가서 / 울긋불긋 대추낭게 한개 따여 입에영고 / 두개따여 품에영고 날 올라고 돌아서니 / 하늘걸은 시애비가 도둑놈같은 발을가주고 / 요리차고 조리차고 떨어졌네 떨어졌네 / 落東江에 떨어졌네 군아군아 뺏사군아 / 나를조곰 건지도고 건지기는 건지지마는 / 눈물나서 못건지겠네”(『민요』 경남 #195 창녕), “애기도령 설이라고 능금한쌍 따먹다가 / 앵두걸은 시누씨한테 들렀구나 들렀구나 / 능금한쌍 따먹다가 시누씨한테 들렀구나 / 한림가네 한림가네 시오마님 한투로 한림간다 / 한림가네 한림가네 시아바님한투로 한림가네 / 한림가네 한림가네 동네방네 어르신네한투로 한림가네 / 한림가네 한림가네 동네방네 어르신네 / 능금한쌍 따먹다가 들렀다고(들켰다고) / (그 능금한쌍 다 먹다 들렀다고 능금 낭캐다 달아 매놓고 어떻게 뿌디리 뺏던지 고마 물명지 이전에 물명지 단중우가 다 피가 맺히 다졌었더라여 그래 앵두걸은 시누씨가 거어서 나왔어)”(『대계』 7-15 선산군 무을면7) 화자는 몸에 능금애기도령이 있어 능금을 몰래 따 먹는다(또는 애기도령이 서 능금 한 쌍을 몰래 따 먹거나 시집온 지 삼일 만에 머루 다래가 먹고 싶어 대추를 몰래 따 먹는다). 화자는 임신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몰래 먹은 것이다. 시집식구들의 용서가 기대된다. 하지만 시집식구들은 화자를 도둑이라 하여 시어머니·시아버지·시숙·동네어른 등에게 고자질하여 명이 들도록 매를 맞힌다. 기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다. 화자가 옷을 장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화자는 북두칠성으로(또는 북쪽의 명주로) 깃을 달고 남쪽의 별로(또는 남북초란 천으로) 고름을 달아 은다리미로 다린 다음 때가 타고 구겨질까 걱정되어 개지도 못하고 줄에 걸어놓는다. 화자는 남편을 위하여 옷을 정성스럽게 장만하고 관리한다. 시집식구의 호의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그런데 시누이가 오며가며 칼로 찢거나 한 올 한 올 뜯는다. 화자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다. 화자가 어머니의 부고를 받아 친정에 가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친정어머니의 부고이므로 친정에 가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다. 시집식구들은 여러가지 일을 시키며 가지 못하게 한다.

성되는가? 화자의 어려움은 밥상에 수저를 어떤 순서로 놓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밥그릇에는 밥을 어느 정도 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어린 시동생에게 말을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등에 기인한다. 수저 놓고, 밥을 담고, 어린 동생에게 말하는 것 등은 여인의 일상적인 생활이지만 시집이기 때문에 고민이 생긴 것이다. 화자의 심리에 의한 고난이다. 화자의 심리는 미래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밥상에 수저를 놓다가 잘못하여, 밥을 담다가 잘못하여, 어린 시동생에게 말을 하다가 잘못하여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미래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³⁰⁾이다. 화자의 불안감이 비애를 형성하는 요인이다.³¹⁾

30) 불안은 특정한 위험을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생 각될 때 생긴 정서이다. James W. Kalat, Michelle N. Shiota, 민경환 · 이옥경 · 김지현 · 김민희 · 김수안 옮김, 『정서심리학』, 시스마프레스, 2007, 127쪽.

31) 다음 자료가 참고가 된다. “집집마다 집문달라 어른어깨 법을받아 / 무삼일이 당해봐도 꾸짐날까 두리하소 / 꾸짐우에 발명해며 어른듣기 수다하며 / 도포창 옷 유렴하고 버선덮개 유렴하고 /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있고 / 집안 간에 화목하고 석삼년을 살고나니 / 미나리꽃이 피었구나”(『대계』 경북 7-5 성주군 벽진면85). 화자는 친정과 시집의 가풍이 달라 시댁어른에게 꾸지람을 들을까 걱정한다. 그래서 도포와 창옷과 버선 덮개와 같은 작은 일에도 유념하며 삼년을 지냈다. 그랬더니 젊었던 얼굴이 미나리꽃처럼 되었다. 화자가 시집식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고난이다. 시집식구에 대한 묘사가 있는 각편에서도 화자의 불안감이 드러난다. “성아 성아 사촌성아 시집살이 어땡더노 / 아이고 동상 그 말 마라 / 시집살이 숭도 많고 첩방살이 말도 많다 / 앞산 솔가지 부영이 앓아 부영부영 시아바씨 / 비단 주머니 금뚝 쳐서 들기 없다 시어머니 / 앞발에라 고치 송겨 맵고 째다 만동세야 / 뒷뜰에라 수시 송겨 흔들흔들 시동생아 / 나무끝에 연자가 앓아 재주굴 재주굴 시누에씨 / 사랑 앞에 목동화는 병글병글 내 낭군아”(『대전』 경북 CD 7-34 성주) 화자는 시집식구를 일상적인 사물에 비유한다. 멀리 앞 소나무에 앓아 ‘부영부영’하며 우는 부영이처럼 멀리서 잔소리하는 시아버지, 명주 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매사에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앞발에 심은 고추처럼 맵고 째 만동서, 뒤뜰에 심은 수수처럼 흔들흔들하는 시동생, 제비처럼 재잘거리는 시누이 등이 예이다. 시집 식구들이 특정한 언행으로 고난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 · 시어머니 · 시

2.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에서의 비애

앞에서 고난에서 해결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에서 해결의 시도에는 중이 되는 것·자살하는 것·항의하는 것·노래 부르는 것·시누이가 죽자 기뻐하는 것 등이 있고, 중이 되는 것·자살하는 것 등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조동일 교수는 자살은 해결이지만 실제로는 무의미하고 실현 불가능한 역설적 해결로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해결”로 좌절이나 고난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결국 자살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해결밖에 없다는 좌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³²⁾ 자살은 표면적으로는 해결의 시도이지만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해결밖에 없다는 좌절을 나타내는 것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특히 그 좌절이 현실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비애가 강조된다. 이러한 해석이 중이 되는 것에도 해당하는가?

선행 연구에서는 중이 되는 것을 극복이라고 보는 견해와 좌절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화자가 자신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좌절이지만 상대 인물의 요구를 거부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한 것이 극복으로 해석한 견해이다.³³⁾ 중이 되는 것은 속세(俗世)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해결일 수 없고 좌절”이라고 한 것³⁴⁾, 며느리가 저항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막다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한 것 등이 좌절로 해석한 견해이다.³⁵⁾ 어느 것이 타당한 해석인가? 화자가 중이 될 때 어떤 생

누이·시동생로서의 일반적인 언행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심리로 고난이 생긴 것이다.

32) 조동일, 앞의 책, 92~93쪽.

33) 서영숙, 앞의 책, 2009, 97쪽.

34) 조동일, 앞의 책, 64~65쪽.

35)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의미-시집살이, 애정갈등노래류의 ‘여성적 말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1~34쪽 ; 김학성, 「구비문학의 민족미학적 정체성」, 『한국

각을 하였는지 살펴보자.

① 우리부모 나를남여 곱기곱기 길러가주 / 녀의관문에 시집을보내
 인심살이가 소박하던강 / 은가락지 끼던손에 호맹이꼭지가 웬일이고 /
 꽃댕이라 신던발에 화라기짚신이 웬일이고 / 금봉채를 하던머리 낮비녀
 가 웬일이냐 / 비단치마 감던허리 삼베치마가 웬일이고 / 불거치라 더운
 말에 미거치라 지스발을 /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시골을 매고나니 / 다린
 정심 다나가고 이내정심 안나오네 / 정슴찾아 들어가니 정재있는 시어
 마님 / 그거사 일이라고 낮을찾고 때를찾에 / 나라이년 물리쳐라 예라이
 년 둘러쳐라 / …… / 밥이라사 주는거는 시커만 보리밥을 사발굽에 부
 치주고 / 장이라 하는것은 삼년묵은 꼬랑장을 / 접시굽에 부치주고 순가
 락이라 카는거는 / 정서관내 통시불을 꺾어주고 그기라사 / 목고나니 배
 가야파 못살겠다 / ② 가요가요 나는가요 한모랭이 돌아가니 / 여시새끼
 인동하고 두모랭이 돌아가니 / 까막간치 지저구네 시모랭이 돌아가니 /
 대자중이 썩나서네 중아중아 대자중아 / 이내머리 깎아주소 머리아 깎
 지마는 / 입재오면 어이하리 입재없다 깎아주소 / 네모랭이 돌아서니 동
 무중이 썩나서네 / 중아중아 동무중아 이내머리 깎아주소 / 머리아 깎지
 마는 입재오마 어이하꼬 / 입재없다 깎아주소 한쪽머리 깎고나니 / 달구
 똥겍은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 양쪽머리 깎고나니 대성통곡 하는
 구나 / ③ 중아중아 동무중아 친정곳에 동냥가세 / 열두푼 삼비치마 한
 푼따서 꼬깔잡고 / 중아중아 대자중아 친정곳으로 모아드자 / 친정곳에
 동냥가니 대문밖에 들어서서 / 동냥왔소 동냥왔소 큰방에있는 우리엄마
 / 큰방문을 열티리미 대문밖에 저대자는 / 우리딸의 소릴랑강 동서남북
 다댕기마 / 같은사람 뺏읍니더 동냥왔소 동냥왔소 / 사랑방의 우리아배
 사랑문을 열티리미 / 대문밖의 저대자는 우리딸의 소릴랑강 / 동서남북
 다댕기면 같은사람 뺏읍니더 / 동냥왔소 동냥왔소 건너방의 우리오빠 /
 건너방문을 열티리미 대문밖의 저대자는 / 우리동상 소릴랑가 동서남북
 다댕기면 / 같은사람 뺏읍니다 동냥왔소 동냥왔소 / 정재있는 우리올케

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293쪽 ; 김학성, 「시
 집살이노래의 서술구조와 장르적 본질」, 『한국시가연구』 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286쪽 ;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
 구』 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88~212쪽.

정지문을 열티리미 / 대문밖에 저대자는 우리시누 소릴란가 / 동서남북
다땡기면 같은사람 썼읍니더³⁶⁾

①은 고난이고, ②는 해결의 시도이다. ③은 화자가 중이 되어 친정을 찾아간 것이다.

①에서 시집식구들의 구박은 말로 하던 것에서 거친 음식을 주는 행동으로 점층된다. 이에 화자는 그 밥을 먹고 배가 아파 못살겠다며 중이 되기로 결심한다. 시집식구들의 거듭된 구박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②에서 “그러구러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집일랑 떠날 수밖에 없다”³⁷⁾고 한 것이 해결의 시도를 결심한 것이다. 화자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음을 나타낸다. 이어 중이 되기 위하여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깎으며 화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은 임자가 없다고 한다. 자신이 소속될 곳이 없고 집단에서 배척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소외감과 함께 머리를 깎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비오듯이 쏟고 머리를 다 깎은 후에는 대성통곡한다.³⁸⁾ 중이 되는 것은 슬픈

36) 『대계』 경북 7-4 성주군 대가면82.

37) 『대계』 경북 7-4 성주군 대가면19, 성주군 대가면212.

38) 중이 되는 것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표출된 각편에서는 자신이 소속될 곳이 없다는 생각이나 슬픔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한귀밀에 깎고나니 눈물이 쏟아져서 / 두귀밀을 깎고나니 소이되네 소이되네”(『대계』 경북 7-4 성주군 대가면19), “하늘이나 날찾을까 때이나 날찾을까 날찾을이 없읍니다 / 한귀밀을 깎고나니 귀뚨에 물분뜻이 눈물이 쏟아진다 / 두귀밀을 마자각아 대성통곡 하는말이 / 우리조모 지란머리 칼머리가 무슨일고”(『대계』 경북 7-4 성주군 대가면20), “허락할 사람없소 한쪽귀뚨이 깎고나니 / 달구똥같은 눈물이 비오듯이 오는구나”(『대계』 경북 7-5 성주군 초전면30), “한귀밀을 깎고나니 시청같은 눈물이 / 땡겨니 듣거니 양귀밀을 깎고나니 / 갱이뚨네 갱이뚨네 강이뚨네”(『대계』 경북 7-5 성주군 벽진면40), “한끼땡기 깎고난게 어마이생각 절로나고 / 양쪽귀땡기 깎고난게 아바이생각 절로나고 / 뒤흑대기 깎고난게 신랑생각 이 나고 / 한발레이를 깎고난게 대성통곡이 나더래여”(『대계』 경북 7-8 상주군 낙동면25), “올어머니 빗긴머리 한쪽귀땡기 깎고나니 / 눈물이 돌아나네 양쪽귀땡기 깎고나니 / 눈물이 쏟아져요 뒤흑대기마저 깎고나니 / 삼단같은 이내머리 손에휘이칭칭 감아들고 / 장대같은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네”(『대계』 경북 7-8

것이고 좌절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③에서는 중이기 때문에 모자의 정을 나누고 싶어도 부모에게 딸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다며 통곡한다. 중이 되는 것은 세속과 단절되며 세속적인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으로 슬픈 것이다. 종합하면 화자는 중이 되기로 결심하며 자신은 이 세상에 소속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친정 부모에게 딸이라는 것을 밝힐 수도 없다며 슬퍼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화자는 중이 되는 것을 좌절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해결의 시도이지만 실제로는 좌절이다. 결국 ‘시도와 좌절의 복합’으로 비애가 형성된다. 특히 여기서의 좌절은 해결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비애는 더 크다. 좌절로 지속되는 것보다 소원 성취의 시도가 남아 있으면서 좌절되는 것이 슬픔이 더 크다는 언급³⁹⁾, 좌절로 지속되는 것보다 욕구와 좌절이 복합되었을 때 슬픔이 더 크다는 언급⁴⁰⁾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상에서 비애가 형성되는 방식을 고난만 있는 각편과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난만 있는 각편에서 비애는 시집생활에 대한 화자의 불안감에서 형성되고, ‘기대→좌절’로 전개되는 것에서 형성된다.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에서 비애는 ‘시도와 좌절의 복합’으로 형성된다. 결국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에서 비애가 형성되는 방식은 시집생활에 대한 화자의 불안감, ‘기대→좌절’로의 전개, ‘시도와 좌절의 복합’ 등이 있다. 앞에서 제시한 유형 별로 비애가 형성되는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주군 청리면15), “한귀때기를 꺾고나이 봉지걸은 눈물이 / 비오듯이 쏟아지고
두귀때기 꺾고나이 / 봉지걸은 눈물이 봉지봉지 쏟아지고”(『대계』 경북 7-12 군
위군 의흥면20),

39) 오세영, 『한국낭만주의시연구』, 일지사, 1990, 332쪽.

40) 김홍규, 「관소리에 있어서의 悲壯」, 『관소리』, 전북애향운동본부, 1988, 289쪽.

시집식구에 의한 고난 : '기대→좌절'
 집식구에 의한 고난→증이 되는 것·자살하는 것 : '기대→좌절' + '시도
 와 좌절의 복합'
 시집생활에 의한 고난 : 불안감
 시집생활에 의한 고난→증이 되는 것 : 불안감 + '시도와 좌절의 복합'

<시집살이노래>에서 비애는 불안감, '기대→좌절'로의 전개, '시도와 좌절의 복합'이 균등하게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대→좌절'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고난만 있는 각편에서도 '기대→좌절'로의 전개가 있고,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에서도 '기대→좌절'로의 전개가 있다.

'기대→좌절'로의 전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대→좌절'로의 전개는 한(恨)이 관련된 듯하다. 한(恨)은 좌절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생기는 것⁴¹⁾, 좌절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미련이 있는 것에서 생기는 것⁴²⁾, 대상과의 관계에서 야기된 억울함에서 생긴다는 것⁴³⁾ 등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억울함이 주목된다. 억울(抑鬱)의 사전적인 뜻은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함'이다. <시집살이노래>에서 '기대→좌절'로의 전개는 그 억울함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화자가 시집식구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언행하여 시집식구의 호의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그런데 시집

41) 천이두, 『한국문학과 한』, 이우출판사, 1985 ; 정대현, 「한의 개념적 구조」, 『한국어와 철학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65~93쪽 ; 최길성, 『한국인의 한』, 예전, 1991, 14쪽 ; 안신호, 「恨 : 한국인의 부정 감정」, 『심리과학』 6,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1997, 61~74쪽.
 42) 김중은, 「소월의 병적-한의 정신분석」, 『문학사상』 20호, 문학사상사, 1974. 5, 200~216쪽 ; 오세영, 앞의 책.
 43) 인간관계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생기는데 이 감정이 한이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억울한 감정이 참아 쌓인 것이 한이다. 최길성, 앞의 책 ; 민성길, 「한의 정신병리학(精神病理學)」, 『코리아안이라고』, 한국 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1998, 43~70쪽.

식구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정반대로 반응한다. 화자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시집식구들이 화자에게 잘못이 있다며 반응한 것도 같은 예이다. 화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 것이다.

IV. 맺음말

영남 지역의 <시집살이노래>는 시집살이의 경험에서 생긴 생각·감정이 표출된 노래로 비애가 잘 드러난다. 비애가 잘 드러난다면 비애를 형성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에서 본고에서는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비애의 형성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애가 형성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접근 방법이다.

비애는 고난에 대한 해결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생긴다. <시집살이노래>에서 고난은 주로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다.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고난에는 시집식구의 구체적인 언행에 의한 것과 시집식구의 구체적인 언행은 없고 화자가 시집식구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에 의한 것이 있다. 고난이 생겼을 때 화자는 고난을 해결하려고 일정한 태도를 취한다. 그 태도에는 상대에 의하여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대(期待)와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해결하려는 시도(試圖)가 있다.

둘째, <시집살이노래>에 나타난 비애이다.

<시집살이노래>에는 고난만 있는 각편과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이 있다. 고난만 있는 각편에서 고난은 시집식구에 의하여 생긴 것과 시집생활에 의하여 생긴 것이 있다. 시집식구에 의하여 고난이 생긴 각편에서 화자는 시집식구에게 정성스럽게 언행하고 이러한 언행으로 화자는 시집식구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하지만 시

집식구들은 정반대로 반응한다. ‘기대→좌절’로의 전개로 비애가 형성된다. 시집생활에 의하여 고난이 생긴 각편에서 화자는 시집생활의 사소한 일까지 고민한다. 그 고민은 불행한 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화자의 불안감에 기인한다. 화자의 시집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애가 형성된다. 고난에서 해결의 시도로의 전개가 있는 각편에서 해결의 시도에는 중이 되는 것·자살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자살하는 것·중이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해결의 시도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비정상적인 해결밖에 없다는 좌절을 나타낸다. ‘시도와 좌절의 복합’으로 비애가 형성된다. 결국 영남 지역 <시집살이노래>에서 비애가 형성되는 방식은 화자의 불안감, ‘기대→좌절’로의 전개, ‘시도와 좌절의 복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기대→좌절’로의 전개는 화자가 시집식구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언행하여 시집식구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할 만하지만 시집식구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정반대로 반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화자가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 억울함과 같다.

참고문헌

1. 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1987.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국, 1994~1999.

김소운, 『諺文 朝鮮口傳民謠集』, 제일서방, 1932.

2. 논저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의미-시집살이, 애정갈등노래류의 ‘여성적 말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1~34쪽.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294쪽.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88~212쪽.

김기현, 「〈시집살이노래〉의 구연 특성과 그 의미-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26, 한국문학언어학회, 1992, 25~36쪽.

김대행,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90, 285~296쪽.

김중은, 「소월의 병적-한의 정신분석」, 『문학사상』 20호, 문학사상사, 1974, 200~216쪽.

김학성, 「구비문학의 민족미학적 정체성」, 『한국 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285~317쪽.

김학성, 「시집살이 노래의 서술구조와 장르적 본질」, 『한국시가연구』 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263~295쪽.

김홍규, 「판소리에 있어서의 悲壯」, 『판소리』, 전북애향운동본부, 1988, 289쪽.

민성길, 「한의 정신병리학(精神病理學)」, 『코리아이마고』, 한국 라강과

- 현대정신분석학회, 1998, 43~70쪽.
- 박선애, 「시집살이 노래 연구-〈가출형 며느리노래〉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178쪽.
-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고전문학연구』 14, 한국고전문학회, 1998, 6~27쪽.
- 서영숙, 「시집살이 이야기와 시집살이 노래의 비교 : 경험담, 노래, 전승담의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1~31쪽.
- 서영숙, 「영남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호남지역 서사민요와의 비교를 위하여」,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학회, 2010, 207~242쪽.
- 서영숙, 『시집살이노래연구』, 박이정, 1996.
- 서영숙, 『한국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역락, 2005.
- 안신호, 「恨 : 한국인의 부적 감정」, 『심리과학』 6,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1997, 61~74쪽.
- 오세영, 『한국낭만주의시연구』, 일지사, 1990, 332쪽.
- 이광규, 「민요에 비친 시집살이」, 『한국문화인류학』 12, 한국문화인류학회, 1980, 1~51쪽.
- 이정아,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인식」,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13~239쪽.
- 이정아, 「시집살이 말하기에 나타난 균열된 여성의식-시집살이 체험담과 시집살이노래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6, 189~219쪽.
- 이정아, 「시집살이노래 구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184쪽.
-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16~17쪽.
- 임재해, 「여성민요에 나타난 시집살이와 여성생활의 향방」, 『한국민속학』

21집, 한국민속학회, 1988, 199~237쪽.

장성진, 「시집살이요의 유형과 인물」, 『여성문제연구』 12,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377~395쪽.

정대현, 「한의 개념적 구조」, 『한국어와 철학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65~93쪽.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67~90쪽.

천이두, 『한국문학과 한』, 이우출판사, 1985.

최길성, 『한국인의 한』, 예전, 1991.

Kalat, James W., Shiota, Michelle N., 민경환 · 이옥경 · 김지현 · 김민희
· 김수안 옮김, 『정서심리학』, 시스마프레스, 2007, 127쪽.

<Abstract>

The Characteristic of sadness at <Patrilocality song> in Yeongnam area

Jeong, Han-gi*

In this thesis, I aim at investigation at the Characteristic of sadness at <Patrilocality song> in Yeongnam area. The result is as follows.

The method of study : The sadness is produced by getting solved the conflict. The conflict in <Patrilocality song> is produced by the outside or the inside. When conflict in <Patrilocality song> is produced by the outside, the speaker has the steady attitude during solving the conflict. The sadness is produced by the speaker's attitude or the speaker's psychology.

The sadness in <Patrilocality song> : In the work with the conflict being produced by the outside, the sadness is produced by the speaker's expectation being concluded the frustration. In the work with the conflict being produced by the inside, the sadness is produced by the speaker's anxiety. In the work with the speaker's try being concluded the frustration, the speaker's try reveal the frustration and the speaker's try performs the role of emphasizing the sadness. After all, the sadness in <Patrilocality song> is produced by the speaker's expectation being concluded the frustration.

*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ey Words : folk song, <Patrilocality song>, sadness, speaker's attitude, Yeongnam area.

- 논문접수 : 2014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4년 8월 29일
- 게재확정 : 2014년 8월 30일